지역 메아리

내장산실버아파트 도서관 '트로트뮤지컬 연상연하' 공연

내장산실버아파트에 있는 실버작은도서관(운영위원장 송연수, 이하 실버도서관)에서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트로트뮤지컬 공연을 실시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힘든 도서산간지역을 예술단체가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여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실버도서관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되어 진행하게 됐다.

이에 실버도서관에서는 예술단체인 음악극단콩나물이 방문하여 '트로트뮤지컬 연상연하'를 공연할 예정이다. 작품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가수 연상연하 커플을 주인공으로 그들의 실제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어냈다. 작품 구성은 어른들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관객들과 교감 하도록 했으며, 이는 영화·TV 같은 매체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는 생생한 연극과 퍼포먼스를 통해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힘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실버도서관은 내장산실버아파트 관리동 2층에 위치하며 실버세대 주민을 위한 큰 글자책을 구비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문의는 063-533-0955로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초·중 교사 절반이상 관외 거주

교외생활지도 미흡 학생들 범죄 지난해보다 12건 증가

부안 관내 초·중등 교사들의 절반이상이 관외에 거주, 교사들의 교외생활지도가 허술해져 부안 관내 학생들의 탈선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일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부안지역의 경우 면 지역 통학 학생들이 터미널 버스정류장 인근 만화 가게·오락실·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 밤늦게까지 방황하고 있으나 학교 교사들의 교외생활지도·선도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안 관내 2017년 한해 중·고 학생들의 범죄는 성폭력 2건, 폭행 6건, 절도 9건, 사기 2건, 자동차 불법사용 6건, 기타 4건 등 31건의 발생하였다.

특히 2018년 지난 7월말 현재까지 부안 관내에서 발생한 중·고생 등 청소년 범죄는 성폭력 1건, 폭행 18건, 절도 8건, 사기 14건, 기타 2건 등 43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12건이 증가, 갈수록 집단화·흉포화되면서 증가일로에 있다.

이처럼 농촌지역인 부안 관내 청소년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놀이공간이 태부족 한데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문제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부안지역 학생들의 각종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관계자들의 교외생활지도와 선도활동이 제대로 못미쳐 청소년보호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부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부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의 거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제 440명 중 36%인 160명만이 부안에 거주하고 64%인 280명이 전주, 익산, 관사(40명) 등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이옥수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기업체 방문 '소통행정'

이원컴포텍 방문 애로사항 청취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유진섭 시장이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이원컴포텍을 방문하고 기업체 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와 건의 사항 등 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유시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공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선 7기 핵심 시정방침인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마련됐다.

㈜이원컴포텍(대표 류일주)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 자동차부품(자동차 시트)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 올해 충남 논산에서 본사를 정읍(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1507-1 외 5필지)으로 이전했다. 올해 현재 기준 매출액은 500억원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120명으로 직원의 90%를 지역인들로 채용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날 류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은 "산업단지가 내장산 자락에 조성돼 있어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첨단방산선연구소를 비롯한 3개 국책연구기관과 연계시설이 갖춰줘 있어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며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앞으로 정읍경제 발전과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활동에 각종 인허가 규제 등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정읍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건의했다.

관계자들과 함께 생산 공정 등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본 유시장은 "(주)이원컴포텍은 지난해 전북도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제20회 전북 수출 및 투자 유공인의 날'에서 내국인 투자 우수상을 인정 받은데서 알 수 있듯이 본사를 정읍으로 이전, 고용 창출과 세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이원컴포텍을 비롯한 정읍 입주 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북도와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해소하는 등 기업경영의 허리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9개소 경로당 '어르신 낙상예방사업' 시범 실시

정읍시보건소는 (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 어르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동지역 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 낙상예방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노인들은 근골격계와 신경계 기능 저하로 하체근력 및 평형유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65세인상 노인 25% 정도는 매년 한두 번 정도 낙상사고가 발생한다. 정읍시는 8월말 현재 시민의 25.47%인 28,730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어서 낙상사고 예방사업이 특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동지역 방문간호사가 선정한 9개소 경로당을 9월부터 11월말까지 개 소당 2~3회씩 순회방문 하여 어르신 낙상예방 교육을 갖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낙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소는 동지역 방문간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혈압·당뇨·콜레스테롤 등의 기초건강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군의원과 논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부안군보건소, 금연교육 가져

부안군보건소가 금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 보건소는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 금연지원센터장 오경재교수 초빙하여, 공무원 금연교육을 가졌다.

이날 군 보건소는 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흡연의 직 ·간접의 폐해, 금연하면 이로운 점 제대로 알아 금연실천율 높이고 비 흡연자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부안,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공무원 금연교육을 실시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군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금연교육 통해 금연 분위기 확산 및 금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금연의지가 있는 군민 누구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하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역공동체 상생 실천… 농산물 지역서부터

고창군-고창웰파크시티-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업무협약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서울시니어스타워(주)고창웰파크시티 및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창 유기농 쌀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은 고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 소비 촉진으로 친환경 쌀 재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고창군의 의지와 고창 유기농쌀 사용에 기꺼이 앞장선 서울시니어스타워(주)고창웰파크시티 이종균 이사장의 뜻이 모아져 이루어졌다.

고창군과 서울시니어스타워(주)고창웰파크시티 및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창 유기농 쌀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니어스타워(주)고창웰파크시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급하는 고창 유기농쌀을 사용하게 되며,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고품질 고창 유기농 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을 책임지기로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필두로 고창 유기농 쌀을 군청 구내식당과 서울시니어스타워(주)고창웰파크시티에 공급할 뿐 아니라 점차 관내 병원, 기업 등 단체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에서부터 지역상품을 애용하면서 유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상생발전과 진정한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이뤄나가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서 청문실, 군의원과 함께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군의원과 함께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고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어있지만 더욱더 다양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이 날 대화의 자리를 함께한 고창군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조민규 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군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청문관 박원성 경위는 "유관기관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개개인에게 맞는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고창경찰서는 지난 5월 관내 대형 전문의료 시설인 고창병원, 석정웰파크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비 무상지원 등 경제적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김성재 고창경찰서장은 "조례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